Creative and Healing Function of ‘Self-Archetype’ Revealed in the Experience and Analysis of ‘Extraordinary Attraction (Falling in Love, Transference)’ : A Study on Love and Transference in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Kye-Hee Kim^{1,2}

¹Department of Psychiatry,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

²C.G.Jung Institute of Korea, Seoul, Korea

‘특별한 끌림(Falling in Love, 전이)’의 체험과 분석과정에서 발현된 ‘자기원형’의 창조적, 치유적 기능: ‘사랑’과 ‘전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및 연구

김 계 희^{1,2}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¹ 한국융연구원²

Who am I?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stories of A and B, who realize who they are during a journey to find their true selves, a journey initiated by an extraordinary attraction (falling in love, transference). This dissertation also contains their introspective study of the "Soul" and "God" whom they have encountered on the way to find themselves. I introduce some selected experience and analysis of A and B. I analyze and compare the images and symbols that appear in the dreams of A and B, and how these images and symbols affect their conscious egos. Extraordinary attraction (falling in love, transference) can be seen as the impulse toward Self-realization, where here "Self" means the totality of the psyche, as well as its center in terms of analytical psychology. However, in order to reach such a happy ending, projection and unconscious identification, which result from non-differentia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often referred to as "participation mystique"), must be recognized and alleviated, which analysis facilitates by interpreting dreams as a subjective stage and by recognizing "Self." In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one is healed and feels the sense of salvation. Creative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artistic creation, and religious experiences are also born in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Psychoanalysis 2017;28(2):38-47

KEY WORDS: Extraordinary attraction · Falling in love · Transference · Who am I.

Received: March 24, 2017 Revised: April 3, 2017 Accepted: April 3, 2017

Address for correspondence: Kye-Hee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g-In Mental Hospital, 940 Jungbu-daero, Giheung-gu, Yongin 17089, Korea

Tel: +82-31-288-0114, Fax: +82-31-288-0107, E-mail: happygoo2@hanmail.net

서 론

‘나는 누구인가?’ 살다보면 가끔씩 문득 들곤 하는 생각이지만 분명한 삶에 쫓겨 답을 구하기를 미루게 된다. 본 논문은 삶 속에서 조우하게 된 ‘특별한 끌림(falling in love, 전이)’으로 인해 시작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기 자

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A와 B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조우하게 된 ‘영혼(靈魂)’과 ‘신(神)’에 대한 성찰이며 연구이다. ‘특별한 끌림’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A와 B, 각각의 체험과 분석과정의 일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하고, 그 추이와 귀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연구하였다. ‘특별한 끌림’을 즈음하여 A와 B의 꿈에서 어떠한 ‘상(imago, 像)’과 ‘상징’이 출현하고 있으며,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한 상과 상징이 의식의 자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의 자아의 태도에 따라 무의식의 반응은 어떻게 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른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환하는지에 대해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비교연구하였다. A와 B, 각각의 체험과 꿈에 나타난 상과 상징을 ‘확충(amplification)’하고 이해하기 위해 융(Jung CG)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의 저술을 소개하고 참고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같은 주제로 향후 이어지게 될 논문들 중 첫 번째 논문이며 개괄적이며 심층적인 조망이기도 하다.

본 론

A에 관한 소고(小考)-‘나는 누구인가’

한 남성을 처음 본 순간 A는 깜짝 놀란다. ‘특별한 끌림’과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은 상반된 충동을 동시에 느낀다. 처음 겪는 이상한 체험에, 순간적인 느낌의 강렬함에 당황한다. A의 의식과 현실상황이 이리할 즈음 꿈에서 그의 모습을 하거나 그를 환기(喚起)시키는 남성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분석의 경험이 없던 A는, 꿈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으나, 매우 인상적이고 많은 꿈들을 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게 된다.

조우(Encounter), 첫사랑(Falling in love)

꿈A1) 처음 운전대를 잡은 나는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다. 앞에는 넓은 강이 있고 강물이 불어나 다리 위로 넘칠 듯이 넘실거린다.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내게 저만치 앞에서 (그의 모습을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리를 건너오라고 나를 격려하고 안심시킨다. 꿈A2) ‘큰 술’이 있다. 술이 매우 커서 술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불을 지피기 위해 몸을 숙인다. 꿈A3)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들’이 뭔가를 조사하러 내게 왔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이불 속에 숨어 있다. 방 문이 열리더니 인부 두 명이 비밀스럽게 ‘둥근 나무상(床)’을 메고 들어와 방 안에 들여놓는다. ‘둥근 나무상’ 속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 모습을 한 얼굴 하나가 솟아올라 나오면서 (그의 모습을 한) 젊은 남자로 변하더니 나를 마주보고 앉는다. 그는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인 듯 하다. 꿈A4) 가슴이 두근거리고 벽차오르고 두렵기도 한 경외의 느낌 속에서 어떤 ‘존재’가 내 곁에 바싹 다가와 하는 말은 “이제 네가 그와 함께 가게 되었다.”

현실에서 그와의 조우 후 꿈 속에서 그의 모습을 한 ‘남성’, 상(像)이 출현한다. 꿈1에서 처음으로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차를 몰며 긴장하고 있는 A에게 그의 모습을 한 ‘남성’

이 저만치 앞에서 건널 수 있으니 건너오라고 지시하고 격려하고 있다. 물이 불어나 넘실거린다. 그와의 조우를 즈음하여 활성화된 무의식의 어떤 내용이 A의 의식적 인격으로 현실의 삶 속으로 드러나고자 한다. 꿈자아는 낮선 상황에 무서워 숨어 있지만(꿈3), 무의식 편에서는 격려하고(꿈1), 밀려들고(꿈1), 비밀스럽게 방문하고(꿈3), 함께 가게 되었다고 고지하고(꿈4) 있다. A는 그와 개인적 만남은 없는 상태이다.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꿈1과 꿈3에 등장한 그의 모습을 한 ‘남성’을 A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어떤 심리적 요소인 ‘주관단계’로 해석하여 A의 ‘통과의례(initiation ritual)’를 돕는 ‘사제(initiator)’, ‘무의식으로의 인도자(psychopompos)’, ‘아니무스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는 사랑의 경험이 없고 소녀 같은 어린 마음을 가진 여성이다. 그와, 그의 모습을 한 내면의 ‘남성’이, 밖에서 안에서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동시성(synchronicity) 현상’으로서의 ‘성인식’을 앞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A가 그를 처음 본 그 순간에, ‘특별한 끌림’으로 인해 깜짝 놀라던 그 순간에, 까마득히 잊혀져 있던, 잠들어 있던, A의 무의식(저편 세상) 속의 ‘무엇인가’가 환기되고 깨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에 대한 ‘특별한 끌림’이 있는 상태에서, 꿈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한 ‘남성’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자 현실 속의 그에 대한 끌림은 심화되고, A는 부지불식간에 꿈 속의 ‘그’와 현실의 그를 같은 존재로 동일시하게 된다. 현실의 그도 A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 모든 상황은 A가 그를 처음 본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특별한 끌림’이 있을 후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A와 그는 만나게 되고 연인이 된다. A는 그 순간을 일기에 “...여러 계절을 보내고 마침내 그와 나는 만났다. ‘구원’의 느낌이 바로 이런 것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신(神)께 감사드린다. 그와 만나게 된 이 순간은 내 인생의 ‘의미’이고 ‘빛’이며 ‘신(神)의 축복’이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쓴다.

A가 구원을 느끼던 이 ‘하나된 순간’은 ‘첫 번째 융합(1st-coniunctio)’의 상태인 ‘무의식적인 투사와 동일성 상태에서 융합(a union in unconscious identity)’을 의미하는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의 상태로 볼 수 있다. 향후 A에게 다가올 것을 소망해 볼 수 있는 ‘더 높은 맺음’인 ‘융합의 비의(mysterium coniunctionis)’가 이루어지는(Jung 1955) 그 순간을 미리 예감하고 얼핏 느낄 수 있었던 선형적 순간이다.

눈먼 사랑, 고통, 어둠, 인식(Disillusionment)

일기) 그가 곁에 있어도 그가 그림자. 그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일기)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된 이 삶의 의미 없음. 그가 옆에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 그와 함께 있어도 살 수 없고 그를 떠나서도 살 수 없는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삶을 견뎌야 하나. 꿈A5) 어떤 ‘존재’들이 나의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 “Separation이 문제다.”라고 말한다. 꿈A6) 떠나가는 출구에 ‘그’가 서 있다. 소년 같은 미소로 나를 쳐다본다. 그 부드러움과 따스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소로 나를 쳐다본다. ‘그’는 내게 낯설며, 나와 친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의 연인이 아닌 것 같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와 오버랩되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의 모습은, 고뇌에 가득 찬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동동 떠다니듯 방황하는 ‘그’의 모습이며, A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람처럼 휩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의 모습이며, 따스한 심장과 피와 몸이 없는 유령과도 같은 모습이다. 그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닿을 수 없고 ‘그’가 만져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A는 혼동스럽고 좌절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문득 깨닫게 된다. 앞의 남자는 실재하는 인간 남자가 아니며 사실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상상(想像)’ 같은 것임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앞의 남자에 대해 사실은 누군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A는 충격 속에서 느끼며 되뇌인다.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가,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일까? 그가 나를 실존의 허무와 고통으로부터 구해 낼 수 없음을 이제는 안다. 나는 꿈꿨다. 그를 안 보려고 시선을 조심한다. 그렇게 강렬했던 그것은 무엇이였을까? 난 누구와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일까? ‘둥근 나무상’에서 나온, 그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남자(꿈3)’는 누구인가...”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고 지고의 기쁨과 구원의 느낌을 체험하게 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된 A는 ‘앞에 있는 남자가 실재하는 인간 남자가 아니며 사실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상상 같은 것’이라고 문득 깨닫게 된다. 융(Jung CG)은 투사를 통하여 지각되는 어떤 인간은 하나의 이마고(imago), 혹은 이마고 및 상징의 운반체라고 저술하였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외부 세상)으로 투사되며, 투사된 내용이 객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무의식적인 내용

이 투사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본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자기성찰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상인들은 다소간 무의식적 투사를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레비-브뤼엘이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라고 부른, 주체와 객체의 비분리성(무의식적 동일시로 인한 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에 대한 특유의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관계의 마법 같은(magical) ‘신비적’ 성격은 ‘모든 것이 잘 나가는 동안은(예를 들면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은)’ 무의식적이며, 객체는 주체에 대해 ‘마술적’ 권위(power)를 가지게 되며, 주체는 객체에게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영향받게 된다(Jung 2001). 이와 같은 동체성이 주체의 주관적 내용의 투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투사로부터의 해방은 객체에게 투사되어 덮여씌워져 있는 이마고(imago)가 그것의 의미와 함께 몽땅 주체로 되돌림 받을 때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Jung 2001). 이와 같은 투사의 철회는 투사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즉 주체인 A에게 ‘특별한 끌림’을 불러일으킨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인 그의 ‘상징 가치’의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식의 빛’이 결여된 ‘눈먼 사랑’은 A를 고통과 어둠에 가두었으며, 내면의 ‘그’와도 현실의 ‘그’와도 A는 의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바람처럼 들이닥쳐 A를 사로잡고 바람처럼 떠나가 버린다(꿈3, 6). 무의식 속의 ‘그’를 외부의 그에게 투사하여 체험하게 됨으로써, 현실 속의 그가 실재로 어떤 사람인지 A는 잘 모르고 있다.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시’가 있었으며 꿈5에서도 드러내 보여주듯이 ‘분리(separation)’가 절박한 과제가 된다.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거친 후 A는 이제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시’ 상태를 어렵웃이나마 인식하게 되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그로부터 마음을 거두고자 한다. 자신에게 생긴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일을 겪게 된 자신은 누구인지, 알고 싶고 알아야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분석을 결심하게 된다. “더 이상 안겨 있을 수 없네. 어둠의 그늘 속에. 이제 너를 휩쓰는 새로운 욕망. 더 높은 맺음을 향해.”라는 괴테의 시(詩), ‘복된 그리움’을 공감하게 된다. 고통을 겪으며 슬퍼하는 것(suffering)은 융합(coniunctio), 즉 무의식과 의식의 합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Jung 1954b).

A의 분석과정에서 발현된 ‘자기원형’의 창조적,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분석 시작 후 첫 꿈(initial dream)(꿈7)과 약 5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꿈들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꿈A7) 신(神)께 제사드리는 사원. '돌로 만든, 목 아래에서 절단된 흰말(白馬) 두상 조각상'들이 죽 늘어져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있다./난 '어떤 존재'와 공부 중이다. 나의 무릎에 놓여 있는 책을 발견한다. 책의 펼쳐진 부분에서 내 인생의 고통과 방향의 이유, 의미, 그리고 답을 발견하게 된다. "Non-being" 아마도 이것은 나의 고통과 방향의 이유인 듯하며, 그 해답인 듯한 어떤 영상이 나타난다. 저편으로부터 씨앗 혹은 돌 같은 작은 물체가 날아와 이 곳 땅에 박힌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려 자라 한 그루 나무로 성장한다. 초록잎이 달리고 꽃이 피어나더니 열매가 맺힌다. 꿈A8)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쪽으로 다가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내 이름을 부른다. 꿈A9) 조각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더니 하나의 그림이 된다. 중심 껍데에 위치한 그림의 한 조각이 눈에 들어온다. '목 아래부분에서 절단되어 있는 흰말(白馬)의 머리'. '어떤 존재'가 내게 말한다. "흩어진 모든 조각조각들을 찾아내어 모아 하나되게 하라. 그 하나하나가 너(그리고 나!)의 고뇌인데 그것들을 합쳐 의미를 흐르게 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여..." 꿈A10) 나와 '그' 사이를 벽과 닫힌 창이 가로막고 있다. 나는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 저편 공간에 있는, 격리되어 있는 '그'를 보며 안타까워 한다. 가로막힌 벽과 창이 사라지고 나는 '그'와 나란히 서서 함께 가고 있다.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다. 꿈A11) '그'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얼굴은 구릿빛이 되고 몸은 건장해 보인다. 그의 몸이 느껴진다. 내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 꿈A12) 내 몸의 중심, 배 속에,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빛의 스펙트럼 같은, 빛이기도 하면서 그 빛이 결정으로 된 크리스탈 같은, 그러나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여 아직은 가늘고, 거칠게 다르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물질이 생겨나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다. 꿈A13) 나는 이제껏 잠에 빠져 있었던 듯, 잠에서 깨어나 책을 펼쳐 든다. 그 책은 나의 꿈을 적은 꿈 일기장이며 동시에 나의 참 모습(진실)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다. 나는 책의 그림을 보고 있으며 동시에 책의 그림 속 장면을 체험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자궁 안에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나는 자궁 속에서 자궁의 붉은 내벽과 혈관을 보고 있다. 꿈A14) 나는 '한 여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 '아! 이제는 되었다!' 불안과 삶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한 행복, 안정감, 평온을 느낀다. 꿈A15) 나의 방 나의 책상이라고 알고 있던 그 곳이, 나의 아버지의 방이며 나의 아버지의 책상이라 한다.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도 여기서 책장들을 넘기며 공부를 하고 계셨다. 충격을 느낀다. 몸을 돌리니 책상 반대편 창 아래 구석에 '야생의 표범-고양이'가 있다. 나는 두려움

을 견디며, 두려우나 아름답고 끌리는 야생의 동물을 마주한다. 내 품속으로 사뿐히 뛰어드는 '야생의 표범-고양이'를 살며시 감싸 안는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위로, 충만함과 기쁨을 느낀다. 꿈A16) '그'가 나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다. 내심 기쁘면서도 '그'가 또 훌쩍 떠나버릴까봐 대답을 않고 망설인다.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친다. 나의 망설임이 계속 된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밖을 내다보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빙 둘러싸인 채 중심에 우뚝 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의 진심이 느껴져 기쁘다.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치료 초기의 꿈'이 무의식의 전체 계획을 의사에게 밝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꿈의 전체 계획에 대한 통찰은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미리 살펴보는 데 가치가 있다. 꿈을 보기로 한 후 가져온 '첫 꿈(Initial dream)'은 흔히 피분석자의 심리적 문제, 진단, 예후 등을 드러내곤 한다. 꿈 속의 상, 상징은 '의미'와 동시에 그 의미를 꿈꾼 이의 의식적 인격과 현실을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충동력을 품고 있다. 분석시작 후 '첫 꿈(꿈7)'에서, A가 구하고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자신의 무릎에 이미 놓여져 있는 그 책의 펼쳐진 부분에 드러나 있으나, A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꿈 속의 '존재'가 그러한 사실을 A에게 일깨워 준다. 책에 씌여진 바에 의하면 A의 고통과 방향의 이유는 'Nonbeing'이기 때문인 듯하다. A는 'Nonbeing'을 '비존재'라고 번역하면서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우주고아'처럼 표류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연상하였다. 꿈7에의 문맥에 의하면 답은 '나무'인 듯하다. '집단적 무의식' 층에서 오는 '원형상(原型像)'일 경우 피분석자의 연상만으로는 상(像)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나무'의 상에 관해 A의 개인연상을 포함하는 인류의 보편적 연상을 수집하여 확충(amplification)을 함으로써 상(像)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나무'는 '생명(삶)의 과정'이며, '의식성의 발달(깨달음, enlightenment)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성'의 상징이며, '자기실현', '개성화 과정'을 상징한다. '나무'는 중세 연금술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상징이며, '비밀의 물질(arcane substance)'의 성장과 '현자의 금(philosophical gold)'으로의 변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현자의 금으로의 물질적 변환'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해 알게되는 것(Self-knowledge)'이며, '자기 자신의 전체(homo totus)를 기억해 냄'을 의미한다. 전체가 되는 것, 전체성은 치유의 효과를 발하게 된다(Jung 1954b).

'절단된 흰말 머리'의 상징(꿈7, 9)과 '자궁회귀(꿈13)'에 대해 융(Jung CG)은 "'준마의 희생(horse sacrifice)'을 통해, 처

음에는 어머니에게 속했다가 그 다음에 세계로 들어간 리비도를 재차 희생함으로써 세계가 지양된다. 준마의 희생을 통해 '세계창조 이전'과도 같은 '내향화(introversion)' 상태에 다시 접어들게 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고, 외부 대상으로 향하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세계 창조 이전과도 같은 '내향화' 단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영혼의 인도자는, 말을 제물로 바치는 봉헌자들을 '바람'에게, 즉 생산하는 '프네우마'에게, 또한 개별적이고 우주적인 '프라나(생명의 입김)'에 데려다 주어, 마침내 '반복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자궁환상(꿈13)'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리비도의 무의식으로서의 침하이다. 리비도는 무의식 속에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이고 유아적인 반응들, 감정들, 의견들과 태도들을 유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보상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지닌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들을 되살린다. 어린시절에 대한 개인적 유대를 버림으로써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멸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상태가 생긴다. 인간의 현존 이후의 이러한 새로운 상태는 다시 또 하나의 희생, 즉 우주적 의미가 부여된 준마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도달된다"(Jung 2006)라고 저술하였다. 외부로 투사하여 경험하지 않도록, 내면으로 집중하고 '내향화(introversion)'할 것을 꿈(꿈7, 9)은 강조하고 있다.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융(Jung CG)은 꿈의 해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객관단계'의 해석이란 현실 속의 외부 대상에 대하여 의식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꿈이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달음으로써 외부 대상에 대한 의식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해석이다. '주관단계'의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에 나오는 여러 대상이나 사건을, 비록 그것이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꿈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요소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아 의식에 동화시켜 의식의 시야를 넓히는 해석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느 꿈에나 적용되지만 융은 후자를 더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우리가 객관단계의 해석만 한다면 밖의 대상을 향한 무의식의 투사를 충분히 되돌려나오는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되고 언제나 현실에 투사를 통한 관계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단계의 해석은 흔히 주관단계의 해석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인 경우가 많다(Rhi 2011).

꿈9의 상(像)과 문맥에 의하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은 A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A에게 꿈을 보내주는 '존재', 상과 상징을 통해 A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흩어진 모든 조각들을 하

나로 모으는 작업(uniomentalis)'은 인간의 마음에서와 신(God that may be One in All)에게서 동시에 일어난다. '흩어진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uniomentalis)'은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됨, 혹은 개성화(individuation)'로 불리우기도 하는, '내적으로 하나됨'이며, 이러한 상태는 신체의 정동성(body's affectivity)과 본능성(instinctuality)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상태, 대극의 균형 상태에서 체험된다(Jung 1955). '영혼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특히 강조한 사상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귀환(redire)하는 것을 회심(conversio), 재형성(reformatio), 하나님을 향한 사랑(amor Dei), 한데 모으는 것(colligare) 등으로 표현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서 분산되고 산란되었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었으나, 초월자이며 영원자이신 하나님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하나로 모아져 통합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백록'에서 "나는 '하나(一者)'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라고 기도한다. '한데 모으다'라는 말은 흩어져 망각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불러내는 '상기(想起)'이며, '마음의 집중'을 의미한다(St. Augustine 2003).

꿈8에서 '그가 A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 있음을 인정하고 그 존재에 개별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중요한 심리적 사건이다(Rhi 2001). 꿈 속의 '그'와 A가 서로의 있음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의식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낯선 모습으로 떠나버리던 꿈6의 '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꿈15에서는 '야생의 고양이-표범'이 방 안으로 들어와 A의 품 안으로 뛰어든다. A의 연상을 포함한 확충에 의하면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로 맹수이다. 몸에 '눈(目)' 같기도 하고 '장미' 같기도 한 붉은 점들이 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도도하고 아름답다. 몸놀림이 유연하고 날쌔다. 한없이 사랑스럽다가도 화가 나면 발톱을 드러내고 핏대를 세운다. 길들이기 어렵고 쉽게 야생으로 되돌아간다. 암컷 고양이는 매우 모성적인 동물이다. 누군가가 고양이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고양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하며 고양이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로, 자신의 영혼을 다른 존재의 손에 맡기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간다. 고양이는 '여성적인 것의 독립적인 개인성(independent individuality of the feminine)'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형식의 여성성'이다. 여성적 원리의 고양이 측면은 '잠재적 전체성'이며, 여성적 원리의 고

양이 측면이 해방됨으로써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 사이의 적대감이 극복되며, 남성과 여성의 평화로운 사랑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고양이는 부정적 아니무스(negative animus)에 대항할 수 있다(Hannah 1992).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Jung 2001).

A는 분석과정을 통해 무의식(꿈)을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성찰해 나감으로써 어린시절을 포함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 속에서의 그와의 사랑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투사를 인식하고 거두어들임으로써, '내향화(introversion)'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분석 시작 전의 A의 고통(suffering)이 보여주듯이 '투사'의 인식과 해소, 즉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 '무의식적 동일성(unconscious identification)'의 해소와 폐지는 자아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꿈의 주관단계 해석'에 의해 무의식의 상(像)들을 주관단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가 있음이 인식되고 인격의 무게중심이 의식의 자아(ego)가 아닌 '자기(Self)'어로 이동됨으로써 가능해진다(Jung 1954b).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정관적(靜觀的) 명상'에 의하여 '내향적이 되어' 투사한 상(像)과 내재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투사'의 대상에서 내재적인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神)의 은총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으로, 그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신이 허락하신다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Lee 1996).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A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와 이별하고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조우하기 전 '아버지의 딸'이며 '어린 소녀'의 상태(꿈15)로 있던 A에게 '개인적인 그림자(shadow)'의 의식화 과정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였다. 여성성의 분화, 모성상의 변환, 특히 고양이를 상징되는 동물적 본능의 의식화(꿈15), 그리고 '그'의 상으로 나타나는 아니무스상의 긍정적 변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꿈16에서 볼 수 있듯이 꿈 속의 '그'는 긍정적으로 변환된 아니무스상으로, 꿈자아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본향(本郷)으로 인도해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A의 이러한 인격의 창조적 변환을 자궁으로 되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꿈13), 몸 속에서 보석과도 같은 빛의 결정(結晶)이 생겨나 자라나는 모습으로(꿈12) 상(像)은 보여주고 있다. A는, 그를 만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그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에게서도 보았던 모습임을 놀라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분리(Separation)'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에게서 먼저 보았으며, 그에게 투사하여 경험하였던, 본래 A 자신의 속성이기도 한, A 자신의 중요한 속성들을 인격 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향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꿈 속에 다시 나타난 '그'는 마침내 A를 찾아내어 간절하게 A의 이름을 부르고(꿈8), 간혀 있던 상태에서 풀려나 A를 만나게 되고, A와 다시 함께 가게 된다(꿈10).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에게서 과거(환상에서) 느껴지지 않아 좌절스러웠던 '몸'이 느껴지게 된다(꿈11). 꿈11과 환상에서 A가 체험하던 상, 상징으로서의 '몸'은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개별적이며 의식된 실존의 표현으로(Jung 2004), '그'의 몸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A에게 무의식적 상태로 있던 '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속성이 의식화됨으로써 A의 인격과 삶 속으로 통합되고 실현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A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가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현실의 그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고대적 일체감(archaic identity)'과 '상호투사(mutual projection)'의 상태가 차츰 걷히면서 의식적이고 인간적인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영원한 운명적 연대감(fated togetherness in eternity)'을 느끼게(Von Franz 1993) 되기도 하였다. '그를 처음 본 그 순간' '신비한 끌림의 그 순간'이, A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점화되는 '찰나'이며 '영원'인 순간이 되었다. 흩어져 분산되고 잊혀진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아 하나로 모으고 그 안에 담아, 새롭게 빚어가게 될, '큰 솥'에 불을 지피고자 A가 몸을 숙이는 그 순간(꿈2)이 되었다. A의 체험과 얼마간 공통점이 느껴지는 칼릴지브란의 시(詩) '첫 눈길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고뇌하였던 A에 관한 소고(小考)를 마치고자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눈맞춤은 "존재하라!"라고 외친 신(神)의 첫마디 말씀과 같다. 창조주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잔잔한 수면 위를 옮겨다니며 하늘과 땅을 잉태시킨 '영혼'과도 같다...

B에 관한 소고(小考)-'전이(Transference)'의 분석

분석을 시작하기 전부터 B는 분석가에 대한 존경과 '특별한 끌림'이 있었다. 3주간 분석을 쉬는 동안 B는 분석가의 부재가 견디기 힘들고 분석가가 그림다. 아마도 이것이 '전이'일 것이라고 지적(intellectually)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사랑에 빠진(falling in love)' 상태로 체험하게 된다.

꿈B1) “떨어서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편과 저편. 넓은 간극 까마득한 저 아래로 깊은 심연이 있다. 나는 건디기 힘든 그리움, 슬픔, 상심으로 이편의 끝 절벽에 서서 저편을 바라본다. 그때 저 아래 심연으로부터 오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영혼은!! 네가 영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너와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결국 영혼과 네가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 기다림을 견뎌 내야 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나는 벼락을 맞은 듯한,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강한 충격을 느낀다.

꿈1은 분석가의 부재를 힘들어하고 그리워하는 B의 상황을 상(像)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B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답’인 목소리가 있다. ‘신(神)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꿈 속의 목소리를 듣는 B는 벼락을 맞은 듯한,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큰 충격을 느낀다. ‘누미노즘(numinosum, 신성한 힘, 神聖力)’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기적과도 같이 그리움, 슬픔, 상심이 눈 녹듯 사라진다.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느끼게 되며, ‘구원’의 느낌과 ‘빛’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지적으로는(intellectually) ‘전이’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사랑에 빠진 상태’이며,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이, 외부 현실에 있는 분석가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B가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분석가가 아니라, 분석가의 실존과 만남을 통해 환기(喚起)된 B자신의 ‘영혼’이라는 꿈 속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그것이 진실(truth)임을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닫게(enlightenment)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잊어버려서는 안될,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어떤 것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느낌과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B 자신은 스스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 같은, 어떤 ‘절대적 진실, 진리, 섭리’를 알고 있으며, 큰 충격과 깨우침을 주고, 기적과도 같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느낌과 빛을 느끼게 하는, 신(神)과도 같은, 지혜로우며 치유하는 ‘존재’, 혹은 그러한 힘이 외부대상으로 존재하는 분석가가 아닌 자신의 꿈 속에,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을 외부에 존재하는 분석가에게로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큰 충격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꿈 속의 목소리가 말하는 ‘영혼’이란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전체’, ‘자기(Self)’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상태’와 ‘그리움’으로 B에게 체험된 ‘전이’ 현상은, 분석가를 통해 환기된, ‘헤어진 채로 있고 있던 자기 자신[영혼, 자기(Self), 전체성]

에 대한 그리움’이며,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고 자신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개성화)의 열망’이며 충동’이다. 꿈1의 상징에 의하면 B가 그리워하고 있던 ‘영혼을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향후 B의 삶에서 기도가 될 것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합성하여 하나된 전체를 인격과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향후 분석과정과 삶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꿈에서 B는 천지창조 이전과도 같은 태초의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 조물주에 의해 창조되고 있었다.

꿈B2) 천지창조 이전과도 같은 태초의 어둠, 그 짙은 어둠 속으로부터 초록빛 얼굴이, 초록빛 두 손이 모습을 드러낸다. 초록빛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둠과 섞여 있던 상태에서부터 그 존재의 형상이 분리되어 나와, 초록빛 수줍은 모습으로 나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존재’인 듯하다. ‘너희들… 어리석은…’을 극복한 ‘너희들… 어리석은…’에서 깨어 나온 어떤 탄생인 듯하다. 꿈B3)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불꽃이 펴 터지더니 분석가의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나 나를 응시하며 말한다. “네가 나에게 강한 전이를 일으킨 이유는, 네 안에 있는 신(神)을 나에게서도 보았기 때문이다.” 꿈B4) 신(神)의 목소리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한다. “네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네가 살면서 겪는 많은 체험과 느낌들이 사실은 ‘영혼’이 인간인 너의 몸과 마음, 너의 삶, 네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체험이며 느낌이기도 하다.”/내 몸 속 가슴 속 중심에 ‘하늘(우주, 공기, 기체) 같은 ‘흰빛 구(球)’가 자리하고 있다. ‘신(神)’이 자리하고 계심을 느낀다. 꿈B5) 나에게 매우 많은 돈이 생겼다. 나를 빙 둘러 에워싸고 초록색 지폐들이 가득하다. 꿈B6) 나는 아가를 품에 고이고이 안고 가슴 떨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다시 길을 가고 있다. 꿈B7) 내가 모르고 있던 집의 뒷채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뒷채에 어떤 ‘존재’가 세 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존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그 방으로부터 둥근 공 모양의 이상하고 부드럽고 은은한 흰빛이 퍼져 나오고 있으며 컴컴한 밤을 밝히고 있다. 꿈B8) 언젠가 저편으로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건너간 적이 있던 나는 저편에서 만난 존재들을 함께 동반하고 예전보다 많이 좁혀져 있는 그 틈을 건너 저편의 그들과 함께 이편으로 건너오고 있다. 꿈B9) 내 집에 내 몸에 무언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금빛의 무언가가 들어 놓아져 잘 간직되게 되었다.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고 든든하여, 구원과도 같아,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구할 필요가 없는 온전함과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집단적 무의식’ 층의 원형상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B의 꿈들을 이해하기 위해 융의 저술의 관련된 부분과 비교고찰하였다. ‘집단적 무의식’ 층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꿈(원형적 꿈)’은 ‘큰 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꿈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기’, ‘특별히 중요한 심리적 상황’에서 생기는 혼치 않고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다. 꿈을 꾸 사람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며, 특히 ‘인격의 발달’에 중요하다. 꿈을 꾸 사람 개인의 것만이 아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Jung 1935a; Jung 1954a).

‘자기(Self)’와 ‘신(神)’에 대한 융(Jung CG)의 저술을 B의 꿈과 비교고찰하였다. ‘자기(Self)’라는 심적 요소가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자아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 그러나 일단,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고 체험하면, 전체 인격의 무게중심이 의식의 자아에서 중심의 ‘자기’로 이동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구원의 느낌’을 갖게 된다(꿈1). 무의식을 의식화하고자 하는 자아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무의식의 조절자인 ‘자기원형’이 활성화된다. ‘자기의 상징’과 ‘신의 상징(神像)’은 경험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자기를 우리 속의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꿈1)(Jung 1954b). ‘자기(신, 神)를 본다’는 것은(꿈1, 3, 4) ‘영원으로 들어가는 창(窓)’을 의미하며, 세상을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one-sided view)으로 보게 되는 것에서 오는 분쟁과 불화에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면을 향하는 눈’이며, 이 눈은 ‘하느님을 보고 있는 인간이며 동시에 인간을 보고 있는 하느님’이다(Jung 1955). 꿈4의 상(像)의 이해와 관련하여, ‘개성화 과정’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인간 몸속의 차크라(chakra)의 단계별 이행과정으로 묘사한 요가의 수행과정에서 네 번째 층은 ‘아나하타(Anahata) 차크라’로서, 횡격막 위쪽에 위치하는 심장, ‘air center’이다. 이곳으로부터 앞의 세 단계와는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요가수행자는 ‘Purusa(神)’를 보게 되며, 이제 그의 삶은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이신 일자(一者), Purusa의 삶이 된다. ‘하나’이신 신(神), 자기(Self)가 요가수행자의 몸 안에 들어 육화(肉化)되기 시작한다(Jung 1994).

‘전이’ 현상과 분석에 대한 융의 저술을 B의 분석과정과 비교고찰하였다. 융은, 전이 현상을 통한 충동은 겉보기에는 피분석자 앞의 사람(분석가)을 붙잡으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분석자 안의 신(神)을 붙잡으려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랑의 가장 높고 본래적인 의미는 ‘신(神)으로 향한 사랑’인 듯(꿈1, 3, 4)하

다고 저술하였다(Jung 2002). 전이의 강도는 투사된 내용의 중요함의 정도에 상응한다. 강렬한 전이는 피분석자에게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꿈3). 그러나 그것이 투사된 상태로 있는 한은 분석가가 그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이가 해소되면, 모든 투사된 에너지들이 피분석자에게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피분석자는 보물을 소유하게 된다(꿈5, 9). 분석가는 그러한 가치를 피분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하는데, 피분석자가 그 보물을 통합할 때까지는 치료와 분석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피분석자가 구세주 콤플렉스를 분석가에게 투사한다면,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 구세주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꿈3, 4)(Jung 1935b). 융은 ‘전이’ 상태에서 겪게 되는 ‘끌림’에 대해서, “전이(투사) 상태에서 일어나는 ‘끌림, 매혹, 사로잡힘, 빠져들’을 연금술의 텍스트는 ‘바다의 어두운 심연에서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왕(왕의 아들)’에 비유하고 있다. ‘어둠’과 ‘바다의 심연’은 ‘보이지 않게 투사되어 있는 어떤 내용의 무의식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한 내용이 인격의 전체성에 속하고 투사를 통해 단지 외관상으로만 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인 한, 의식과 투사된 내용 사이에는 항상 어떤 끌어당김이 일어난다. 이러한 끌림은 대개 매혹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금술적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분열되고 무의식적인 심연의 상태에서 외치는 왕의 구원의 요청으로 표현했다. 텍스트에 의하면 의식은 이러한 외침에 복종해야 하며, 왕에게 주목하고 왕에게 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일 뿐 아니라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를 위해서는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로의 하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Jung 2004).”라고 저술하였다. 앞의 문장의 이해는 나 이와 상황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삶을 충분히 살아 낸 중년 이후의 사람에게 이것은 끌리고 매혹시키는 밖의 대상을 향해 충동이 이끄는 대로 다가가 충동을 행동화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전이’ 현상으로 인한 ‘충동(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을 겪고 견뎌냄으로써, 꿈1에서와 같이 충동은 ‘상(像)’으로 변환된다. ‘사랑에 빠진 느낌’, ‘그리움’ 등의 충동이 ‘상’으로 변환되어 충동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그 후 전이 현상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자아를 사로잡고 있던 충동의 위세는 수그러들어 고요해지고, 무의식적이었던 내용이 의식화되어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식은 전이의 대상으로부터 차츰 ‘분리(separation, detachment)’되어, 전이의 대상에 대한 강박적인 유대(의존, 속박)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Kim 2009; Kim과 Park 2015).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은 너와 나의 무의식적 동일시가 아니라

자아의 투사로 인해 ‘타자(너)’에 숨어 있는 모든 것과의 의식된 결합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매혹을 주의 깊게 분석함으로써, 자기 고유의 인격의 일부분을 제5원소로서 끄집어내고,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천(千)의 위장을 한 우리 자신을 언제고 다시금 만난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게 된다(Jung 2002).

융은 1935년 타비스톡 강연에서 전이의 분석과 치료에 대해 네 단계로 강연하였다. B의 분석과 관련하여 전이의 분석의 ‘네 번째 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이의 분석은 인간 내부의 자연(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들, 특히 ‘자기’로부터 오는 자연의 빛)이 대상으로부터 피분석자의 의식을 분리(separation, detachment)시키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introversion),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집단적 무의식’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무의식’과의 통합은 집단적 무의식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선행 작업이며 준비단계이다. 외부대상(객체)으로부터 의식을 분리(separation, detachment)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행복과 생명(삶)이 자신 밖의 대상들에게 좌지우지되거나 휘둘리거나 영향받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꿈 4, 5, 6, 7, 9) 것에 있다. 피분석자 자신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무계의 중심은 이제껏 피분석자가 의존해 온 외부대상(객체, 분석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에 놓이게 된다.”(Jung 1935b) 융이 타비스톡 강연에서 언급한 ‘보물’의 의미에 대해, 꿈4의 몸 속에 자리한 ‘하늘(기체) 같은 흰빛 구(球)’, 꿈9의 집(몸) 안에 들여놓아진 ‘보물’, 꿈5의 ‘매우 많은 돈이 생김’, 꿈8의 ‘이편과 저편 사이의 틈이 많이 좁아짐’ 등을 포함하는 B의 꿈의 상들과 관련하여 확충하고 비교고찰하였다. ‘구(球)’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전체성’이다. 헛된 투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던 삶이 ‘구’를 통해 다시금 가능하게 된다. ‘구형’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 ‘전체(totality)’인 ‘자기(Self)’의 상징이다. ‘영혼(Soul)’과 ‘세계혼(world soul)’은 ‘구’의 형태일 것이다. 성(性)의 분리 너머에 있는, 혹은, 오직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합성되어 합일됨으로써 도달될 수 있는 인간의 ‘전체성’이다(Jung 2002). ‘하늘(caelum)’은 ‘소우주(microcosm)’ 그 자체이며, ‘자기(Self)’의 상징적 예시이다. ‘전체로서의 인간을 실현’하는 것은 기질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상태를 치유하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하늘’은 ‘범치료제’ 혹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고, ‘삶의 향유’, ‘불로 장생약’,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물질’ 등으로 불리워 지기도 하였다. 살아있음에도 그것은 움직이거나 동

요하지 않으며,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모든 대극들이 융합되어 하나된 것으로, ‘진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늘’의 생성은 보통 분석 과정을 통해 대극들이 강한 기운으로 배열되어, 하나됨(융합,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절박한 필요성으로 다가오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림자’의 대면과 의식화가 매우 중요하다(Jung 1955).

융은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성’의 인식과 해소의 필요성, 해소책, 해소의 결과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서고금의 문헌들을 소개하며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의식이 의식 옆에서 의식과 함께 참여하는 존재임이 인정된다면, 그래서 의식의 요구와 무의식의 요구를 가능한 한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전체 인격의 무게 중심은 더 이상 단지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Self)라고 부를 수 있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어떤 지점(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한다면, 그 결과로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의 해소가 일어나게 되고, 소위 건물의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고통받지만, 위층은 고통이나 기쁨으로 이루어진 사건들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상위인격)이 탄생하게 된다. ‘상위인격’의 생산과 탄생은 ‘성스러운 열매’, ‘금강체’, ‘썩지않는 몸’, ‘정신적 몸체’, ‘신비체’, ‘공기(기체)와 같은 인간’, ‘어린이’의 상징적 출산과 탄생(꿈4, 6)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얽히고 휘쓸리고 타격받는(emotional entanglements and violent shocks)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태도와 의식성을 획득하는 심리학적 상징이다. 그것은 개인의 생명(삶)과 안녕을 위해 몹시도 중요하며 미묘한 감정으로 드러난다. ‘파면되고 소외된 존재’의 느낌이 아닌 ‘등가적이며 대등한 존재’의 느낌으로, ‘신비적 참여’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인 강박성이나 가능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혈연관계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삶에서 다가오고 생기는 모든 것들과 화해하는 감정(feeling of reconciliation with all that happens)이기도 하다(Jung 1929).

결론

사랑에 빠진 것으로 느껴지고 그리움을 동반하며 분석과정 중 ‘전이’ 현상으로 겪게 되기도 하는, 마치 ‘상사병(相思病)’처럼 보이기도 하는 ‘특별한 끌림’의 체험은 높은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기실현(개성화)의 충동’임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끌림’은 창조적(creative)이고 창조(creation)를 가능하게 하여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일어나게 하며 ‘예술적 창조’를 낳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

신의 내부에서 ‘영혼’과 ‘신(神)’을 만나게 됨으로써 ‘종교적 자세’를 회복하고 ‘치유’와 ‘구원’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의 상태라고도 불리는 ‘주체와 객체의 비분리성’ 상태인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성’ 상태의 인식과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A의 사례에서 관찰되었듯이 ‘투사’와 ‘무의식적 동일성’ 상태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성찰하고 꿈을 ‘주관단계’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Self)’를 인식하고 인격의 무게중심이 자아에서 ‘자기’로 이동되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기(Self)’를 체험하는 것은 ‘신(神)’을 체험하는 것과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B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영혼’과 ‘신(神)’을 만나게 되는 체험은 ‘집단적 무의식’ 층의 ‘자기원형상’과 접촉하고 ‘자기원형’의 창조적, 치유적 기능과 접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경험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체험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실현’ 과정은 다른 아닌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합성하여 자기 자신의 전체가 되고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던 영혼과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융합의 비의(mysterium coniunctionis)’에 이르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턱낫한 스님의 말씀을 끝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턱낫한 스님이 스물네 살 때 스무 살 나이의 고운 여승을 처음 본 순간 첫사랑에 빠지셨다. 스님은 그때의 ‘사랑’과 ‘그리움’을 평생 동안의 수행의 바탕으로 삼고 명상하셨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깊숙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참 본디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첫사랑’은 여전히 지금 여기 있으며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순간, 나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그리워하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 보세요. 부처님이 보일 겁니다. 진정으로 ‘꽃 한 송이’를 깊게 만지면 ‘우주’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통찰하며 만남(접촉, encounter)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를 ‘화엄세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Thick Nhat Hahn 1996)

Acknowledgments

소중한 체험과 분석과정의 일부를 본 논문에 실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기꺼이 결심해주신 A와 B, 두 분의 피분석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분량의 원고를 세심하게 리뷰(review)해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정신분석학회 하지현 간행위원장님과 간행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인근 정신분석학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Hannah B. The cat, dog and horse lectures. Wilmette: Chiron Publication;1992. p.65-106.
- Jung CG(tr. by CG Jung Institute of Korea). Basic Problems of Psychotherapy. Grundwerk C.G. Jung 1. Seoul: Sol;2001. p.184-198.
- Jung CG. Commentary on the ‘Secret of Golden Flower’. In: Jung CG. Alchemical studies.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29. p.44-54.
- Jung CG(tr. by CG Jung Institute of Korea). Hero and Mother Archetype. Grundwerk C.G. Jung 8. Seoul: Sol;2006.
- Jung CG(tr. by CG Jung Institute of Korea). Meaning of Salvation in the perspective Alchemy. Grundwerk C.G. Jung 6. Seoul: Sol;2004. p.135-139, 209-213.
- Jung C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5. p.432-549.
- Jung CG(tr. by CG Jung Institute of Korea). Personality and Transference. Grundwerk C.G. Jung 3. Seoul: Sol;2002. p.167-353.
- Jung CG. Psychology of Kundalini Yoga. Notes of the Seminars Given in 1932 by C. G. Jung.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94. p.39-58.
- Jung CG.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W 17.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4a. p.208-209.
- Jung CG. The Philosophical Tree. In: Jung CG. Alchemical studies. CW 13.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54b. p.253-341.
- Jung CG. The Symbolic Life. CW 1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35a. p.250, 1159.
- Jung CG. The Tavistock Lecture. In: Jung CG. The Symbolic Life. CW 1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1935b. p.135-182.
- Kim KH. Father complex in women and the healing. Shim-Song Yon-Gu 2009;39:44-45.
- Kim KH, Park S. Jungian understanding of father complex. Studies from C.G. Jung Institute of Korea on Analytical Psychology 3. Seoul: Hakjisa;2015. p.110-111.
- Lee YK. Psychological meaning of Western alchemy from the Jungian standpoint of view. Shim-Song Yon-Gu 1996;15:27.
- Rhi BY. Anima and animus. Study of Analytical Psychology 2. Seoul: Hangilsa;2001. p.246-247.
- Rhi BY. Textbook of Analytical Psychology. 3rd ed. Seoul: Iljogak;2011. p.215-216.
- St. Augustine(tr. by Sun Han Yong). St. Augustine’s Confe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2003. p.77, 328-329.
- Thich Nhat Hahn. Cultivating the Mind of Love. Berkeley: Parallax Press;1996.
- Von Franz ML. Some aspects of transference. In: Von Franz ML. Psychotherapy. Boston and London: Shambhala;1993. p.238.